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 개소식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이학분야 선도연구센터(SRC)로 선정된 KAIST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Stochastic Analysis and Application Research Center, SAARC) 개소식이 7월 18일 수리과학과 Edu 4.0 강의실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30년 전 선도연구센터사업을 처음으로 기획했던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비롯하여 이희운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고도경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

장, 금중해 대한수학회장, 이광형 교학부총장, 채수찬 대외부총장 등 수많은 내외 인사가 참석하여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개소식 후에 연구센터 핵심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전체 워크숍에서 센터의 공동 연구 방향과 그룹별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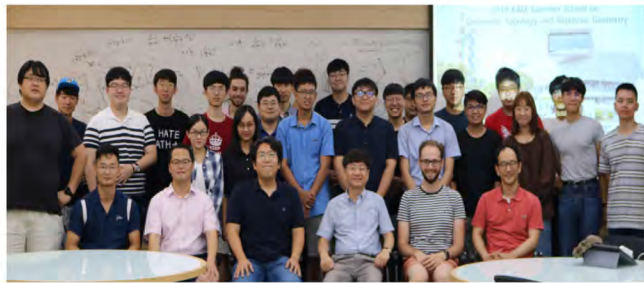
SAARC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에서 확률론 및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돕는다. 7월에는 수리과학과 황강욱 교수와 POSTECH 수학과 황형주 교수 주관으로 KAIST-POSTECH Workshop on Mathematics and AI를 개최해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에서 수학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월에는 대한수학회 확률론 워크숍을 SAARC 주관으로 KAIST 수리과학과에서 개최하며, 내년 봄에는 랜덤 행렬 이론 관련 국제 학회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기 워크숍, 정기 세미나, 국내/국

제 학회, 집중 강연 시리즈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수연구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SAARC는 9월에 2명의 연구원을 센터 소속으로 임용했으며, 내년에도 연구원을 신규 채용한다.

SAARC가 수학 발전에 공헌하는 연구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수학분야 KAIX 테마틱 프로그램 개최



일반적인 학술회와 달리 테마틱 프로그램(Thematic Program)은 수 주간의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다수 초청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술포럼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백형렬 교수와 이용남 교수는 KAIST 자연과학대학 산하 KAIX 센터의 지원으로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대수기하학과 기하위상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틱 프로그램을 주관했다.

이번 테마틱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테마틱 프로그램의 첫 주에는 기하위상수학 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Geometric Topology Fair 학술포럼이 개최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에는 학생들과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학교, 마지막 주에는 대수기하학 분야의 집중강연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중에서 '여름학교'는 해당 분야를 배워보고 싶은 학부생, 대학원생, 신진연구자 등에게 실제 연구되고 있는 주제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어 미국 유타대학 석좌교수이자 KAIX Scholar인 Mladen Bestvina 교수의 강연을 비롯하여 32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여름학교에는 국내외에서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수리과학과에서는 김완수, 박진현, 백형렬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테마틱 프로그램에서 기획한 다양한 행사에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참석했다. 특히, 여름학교에는 자연과학대학이 국제 교류 협력 강화를 목표로 선발하고 초청해서 베트남과 태국의 다섯 개 대학으로부터 온 11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수준 높은 강연들과 KAIST의 국제적 연구 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이 학생들 일부는 KAIST 대학원 지원을 희망하게 되어 여름학교는 국제 교류 협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소감글



김우혁 (학부18)
수리과학과 학부생

안녕하세요. 현재 수리과학과 학부 학생회에서 부과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혁입니다. 어릴 때부터 카이스트에 와서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래전부터 제가 바라왔던 모습대로 되어 있다는 게 가끔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좋아했던 수학이기에 전공을 선택할 때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수리과학과에 들어온 이후로는 학과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학이 참 멋진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은 대부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가정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정리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정리들은 완벽히 논리적인 바탕 위에 있습니다. 좀 더 크게는 수학이 세상의 이치를 논하고, 자연현상에 관해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며 보다는 세상을 만들려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수학을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수학은 다른 어떤 학문도 흉내 내지 못할 독자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애정이 커서인지 가끔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

한 주변 친구들의 인식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수학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학을 좀 더 공부하고 학과 생활을 하면서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학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 이해력과 해결력, 응용력은 수학이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갈수록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저는 현재 학생회 부과대표로 일하면서 학과 내 친목 활동, 헬프데스크, 학과설명회 등을 통한 학과 홍보에 책임감을 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종 힘들 때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학과설명회에 새내기 후배들이 많이 오고, 더불어 수리과학과를 많이 선택한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습니다.

학생회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학과에는 학부 콜로퀴움이나 오픈랩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학부생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수학 공부가 훨씬 즐겁고 학과 생활이 한층 유익할 것입니다. 다양한 학과 내 활동과 프로그램에 학부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수학을 사랑하는 학우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통합공간 마련을 위한 학과기금 모금

목표액:10억원 약정액 현황(2019년 10월 30일 현재):28.27%

기부액 등급

Platinum (5천만원 이상), Gold (1천만원 이상), Silver (2백만원 이상), Bronze (5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Platinum	최운경(수리과학과 전 행정팀장)
Gold	고기형(명예교수), 구자경(명예교수), 김용정(교수), 이창욱(교수/석사84), 신수진(학부87), 진교택(교수), 황강욱(교수/학부87)
Silver	곽도영(교수), 구기환(학부04), 권순식(교수), 김도영(학부16 김지홍 학생의 부), 김동규(학부15), 김동환(교수), 김민규(학부02), 김봉석(학부16 김재현 학생의 부), 김성호(명예교수), 김재경(교수), 김화선(석사85), 노건업(석사00, 박사02), 박동준(학부15 박용환 학생의 부), 박민재(학부11), 박진현(교수/학부95), 박주홍(학부07), 변재형(교수), 배성환(교수), 백형렬(교수/학부03), 서영도(학부16 서지우 학생의 부), 신정수(학부15 신준형 학생의 부), 심규석(학부07), 엄상일(교수/학부94), 이경미(학부15 김동규 학생의 모), 이승우(학부06), 이용남(교수), 이지운(교수), 임미경(교수), 조주현(학부01, 석사08), 최건호(교수), Filippo Morabito(교수)
Bronze	강제욱(석사03), 권기현(명예교수), 김성동(학부16 김진환 학생의 부), 김희주(학부17 김동현 학생의 부), 박종호(학부09), 배수영(학부08, 석사12, 박사14재학 배다솔 학생의 부), 서동엽(교수), 오승택(학부90), 우재오(학부01), 유학성(학부13 유현웅 학생의 부), 이기왕(학부86), 이종구(수리과학과 전 행정팀장), 이준희(학부15 이재철 학생의 부), 최우진(명예교수)